

NEIGHBOR

International Art, Design and Style

네 이 버

The New Audi A7





프리다 칼로

20세기 멕시코를 대표하는 여류 화가 프리다 칼로. 그녀의 남편이자 화가인 디에고 리베라와 당대 멕시코 작가 10인의 작품으로 구성된 <프리다 칼로_절망에서 피어난 천재 화가> 전시 열린다. 회화, 사진, 영상 등의 작품 100여 점에는 프리다 칼로의 절망적인 삶과 사랑이, 예술이, 멕시코의 시대상이 담겨 있다. 무엇보다 프리다 칼로의 국내 첫 전시다.

일시 6월 6일~9월 4일 **장소** 소마미술관
문의 02-801-7955



한성우 개인전

"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무대의 정면이 아닌 뒷면이다. 나는 어떤 목적이 있는 장소나 대상이 그 목적과 효용을 잃었을 때의 순간에 애정이 간다."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공간과 대상의 흔적. 한성우는 그런 풍경을 화폭에 담는다. <풍경의 뒷모습> 전. 그런데 그의 풍경은 편안함이 아닌 불편하고 어색한 풍경으로 다가온다. 그의 풍경 속 단절된 '틈'은 뭘까. **일시** ~6월 20일

장소 스페이스비엠 **문의** 02-797-3093



폴란드, 천년의 예술

쇼팽과 코페르니쿠스의 조국 폴란드. 이번엔 폴란드의 미술이다. 폴란드의 역사와 예술을 소개하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전시 <폴란드, 천년의 예술> 전. 이번 전시는 폴란드를 대표하는 회화, 조각, 공예 등 중세부터 20세기의 폴란드 역사와 예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. 바르샤바국립미술관을 비롯해 폴란드 전역 17개 기관에서 날아온 작품 2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. **일시** 6월 5일~8월 30일 **장소** 국립중앙박물관
문의 1688-9891



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<단색화>

한국의 단색화 거장들이 베니스로 날아갔다. 베니스비엔날레의 병렬 전시로 기획된 <단색화> 전을 위해서다. 이번 전시엔 박서보, 정상화, 하종현, 이우환을 필두로 한 한국 단색화의 태동기와 중기, 현재를 아우르는 주요 작품 70여 점이 소개된다. 베니스의 유서 깊은 건물로 꼽히는 팔라초 콘타리니-폴리냐와 단색화의 기묘한 동거는 그 어떤 것보다 흥미롭다. **일시** ~8월 15일
장소 베니스 팔라초 콘타리니-폴리냐
문의 02-3210-9885